

상생권역 지정해 국책사업 연대... 지자체 역할 분담해야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4>상생협력의 조건들

각계 전문가들은 호남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내부 경쟁·마찰 지제, 호남 미래를 위한 공동 구상, 광역자치단체장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나주에 조성한 빛가람 혁신도시, 청주공항 살리기에 나선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공동 협력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광주와

▣ 문화전당·목포신항·새만금 등 시설·인력 재평가 교통망·관광벨트 구축 등 호남권 통합계획 수립 필요

전남이 '공동 조성'이라는 카드를 정부에 제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총장권은 2007년부터 '신규 국책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주국제공항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공동 노력으로 청주공항은 올 상반기 이용객이 75만1890명으로 100만명을 넘보고 있다. 이에 반해 무안공항은 같은 기간 6만8815명에 불과,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전북 등 광역 지자체,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 전북 14개 시·군의 자원,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평가를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뒤 호남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설과 프로젝트의 공유 의식 필수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첨단산업단지, 빛가람혁신도시, 마한문화유적,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새만금, 군산공항 등 각 지역별 성장동력을 연계·협력의 축으로 재평가하고 상호 보완·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북아시아 호남의 대외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지역의 기능을 일정수준까지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지역역량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높다"며 "광주·전남은 영산강유역권, 전북과는 추후 논의를 통해 상생권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전 거점을 설정하면 정부지원도 가능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공동 연대 나서야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책사업에 대한 공동보조가 호남 상생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책사업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및 연대사업을 모색하는 실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교통망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관광벨트 구축 및 관광상품을 공동개발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상품 판매 공조체제를 만들고 호남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고 있는 만큼 문화교류행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전남·전북 통합종합계획 수립 =노경수 광주대학교수는 도로, 철도, 하천 등과 관련 물리적 계획에 있어서 호남권 통합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도로 연계망, 경전선

복선 전철화 등 철도망 체제, 광주·무안·군산공항의 역할 분담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 주변의 나주·화순·담양·장성·함평, 전북 남측의 고창·정읍·순창·남원 등의 행정구역은 허물고 광주대경제권으로 묶어 동반발전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다. 노 교수는 "광주·전남·전북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상생발전추진위원회(가칭) 발족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하나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광주·전남·전북이 전당과 연계되는 공동 문화관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공항 문제, 대규모 프로젝트 상호 중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상생발전추진위원회(가칭)를 광주와 전남이 먼저 구성하고 향후 전북과 논의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임 공동의장은 "이 밖에 도로·빛가람 혁신도시 내 에너지

벨리 및 재생에너지 메카 구축, 영산강 자연화 추진 등이 연계·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역 인접한 시·군·구부터 협력사업 =한 지역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최치호 전남대 교수는 '인접한 지역 간 협력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서로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면서 한 곳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메디치 효과(Medich Effect)라고 한다"며 "지역 간 공동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을 파생시킨다는 관점에서 융·복합의 사고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상생협력 과정에서 관광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일자리 질' 나아졌다

'지역별 일자리 분석 보고서' 전국 임금·근로시간 등 평가

광주 8위·전남 9위...수도권·대전 가장 높고 강원 최하위

취직 기회와 고용 안정성, 임금 등 다양한 항목을 두루 평가해 국내 지역별 일자리의 질을 따져본 결과 광주와 전남은 중간 순위인 8·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김영민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통계치를 기준으로 광주는 50.6, 전남은 48.7로 전국 평균(51.0) 이하를 기록했다.

일자리 질 지수는 7가지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매겨졌다. 고용 기회와 고용 안정성, 능력 개발, 임금 보상, 근로시간, 작업장 안전, 고용 평등 등이다.

광주는 지난 2008년 50.6(4위)으로 당시 평균(48.8)을 상회했다가 2010년 46.3(10위), 2011년 51.1(5위)을 기록했다. 전남은 2008년 39.7(13위)로 시작해 2009년 45.9(9위), 2010년 46.1, 2011년 47.1로 매년 평균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는 임시·일용직 비율과 고용계약기간 1년 이하 비율로 측정된 고용안정성 지표와 전문직 종사자 및 전문대졸 이상 비율로 측정된 능력개발 지표에서 각각 74.2와 75.9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있고 전남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평가하는 근로시간 지표와 여성고용비율과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 고용률 격차로 측정된 고용평등 지표에서

순위	지역	지수
1	서울	64.5
2	대전	58.9
3	경기	58.6
4	충북	54.1
5	경남	52.4
6	제주	52.2
7	충남	50.7
8	광주	50.6
9	전남	48.7
10	인천	48.1
11	전북	47.2
12	대구	46.4
13	부산	45.9
14	경북	45.5
15	울산	42.7
16	강원	40.6

자료:산업연구원

도(58.6)가 차지했다.

대전은 능력개발(2위)과 작업장 안전(2위) 항목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고 경기도는 고용안정성(2위)이나 임금보상(3위) 등의 측면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질이 가장 낮은 강원도는 근로시간 항목이 전체 1위였지만 작업장 안전(16위)이나 능력개발(13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극한 노동강도로 인해 '염전 노예'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전남도가 오는 2015년까지 8억6000만원을 투입해 '천일염 생산 자동화시스템 및 염수관리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최근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염전에서 퇴염벽 아래 채염(採鹽)하고 있는 염전 근로자.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염전일, 이제 로봇이 한다 전남 천일염 생산 자동화사업 '창조비타민' 선정...로봇개발 추진

내년이면 천일염 생산에 투입되는 로봇이 개발될 전망이다. 극한 노동강도로 인해 '염전 노예'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기도 한 만큼 개발된 로봇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12일 "정부가 창조 대국을 향한 국가 혁신전략으로 선택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에 도에서 추진 중인 '천일염 생산 자동화시스템 및 염수관리로봇 개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천일염 생산 자동화시스템 및 염수 관리로봇 개발사업'은 지난 4월 미래부 '지역 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5년까지 국비 5억40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 시·군비 1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광양만권 SW융합연구소를 주관하며, 에스엠소프트웨어(목포소재) 등 4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염전 지능망 구축, 생산제어장치를 통해 염수

급배수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우천 감지 및 채염(採鹽) 시기 결정 소프트웨어와 염수(鹽水) 관리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가 이뤄지면 전국 천일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염전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생산 환경을 상당부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사회 이슈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수행하며, 전문가관을 최대한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번에 11개 중앙부처, 전남도 등 4개 지자체를 협업기관으로 19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창업·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과, 성과 보고회 개최 등 후속지원도 추진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곡점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맡은 있는데 공사가비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지원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열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서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청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2013년 금고자산 2,607억원
당기순이익 19억3천만원
배당금 5.0% (현재 당기이익 대비 2%)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서양새마을금고
본회 671-5000 담양지점 652-9203 함양지점 364-7557 주유사업소 720-2880